



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 宜 洛
編輯人：沈 載 烈 (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 賣 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 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12世祖 通訓大夫行 全州鎮管兵馬同節制使 礪山郡守公 諱仁補 行狀 (통훈대부 행 전주진관병마동절제사 여산군수공 휘 인보 행장)



▶ 礪山郡守公 諱仁補 墓所 소재지 : 충주시 소태면 북탄리(무곡)



▶ 묘비석

름날에 별세하니 향년이 69세이다. 이해 9월에 忠州 武洞 (현 소태면 북탄리) 良坐의 언덕에 장례하니 부인과 합편 (합窆)이다. 지난 임신년에 공의 아버지(휘 荀)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여러 아들을 남기셨을 때 공은 어린 나이였으나 뜻소리를 그치지 않으니 弔客이 잠아 보지를 못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자기 집을 떠나 모친을 모시고 정주 (定州)에 가서 생활하였는데 얼굴빛도 순하고 봉양도 잘했다. 仲氏(仁視)께서 禮山현감으로 부임할 때는 형을 수행했다. 모친의 병이 위독하였을 때 손가락 피를 내어 먹여 드렸으며 초상 때에는 애례(哀禮)를 다하였다. 늙을수록 효성이 높아 제사 날에 친히 제물을 살피고 亡日에는 반드시 곡읍(哭泣)을 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子姪을 恩義로 대하고 시골에서 온 宗族에게는 主食을 대접하였으니 공은 참 孝悌하는 사람이다. 문학을 하되 古文을 즐기고 과거 공부는 안 하며 글씨와 그림에 유능하여 세상에 이름이 났으며 殿門의 간판과 비석의 글씨가 그의 손에서 많이 나왔다. 또 정사에 재조(才操)가 있어 만년에 벼슬길에 나갔으나 크게 승진을 못하고 權黨의 오역(忤逆)을 당하여 官運이 퍼지를 못하였으니 哀惜하다. 부인은 坡平 尹氏 坡城君贊의 後孫이고 司直希元의 따님이며 光州 金夢爽의 외손녀이다. 嘉靖癸丑(1553)년에 출생하고 萬曆壬寅(1602)년에 하세하니 향년이 50세이다. 부인은 공과 결혼 후 婦道를 겸비하고 집 살림을 잘하여 門中이 賢婦라 칭찬했다. 三男一女를 둔바 장남 작(紱)은 진사이고 차남 담(紱)도 진사이며 삼남 율(紱)은 생원이며 따님은 현감 송시보(宋時保)에 출가했다. 후취 부인은 四子一女를 두었는데 장남은 흘(紱)이고 차자는 유(紱)로 진사이고 셋째는 수(紱)고 넷째는 서(緒)로 武郡守이며 딸은 허상적(許相積)에 출가하였으며 무후이다. 작(紱)은 全義李氏 士人 永男의 따님을 취하여 三男四女를 두니 장남 정호(挺豪)는 문관사예(文官司藝)이고 차남 정현(挺賢)은 진사이고 셋째는 정

공의 휘는 인보(仁補)요 字는 익보(益甫)이며 青松沈氏이다. 시조는 고려문림랑위위시승(高麗文林郎衛尉寺丞)이고 휘는 흥부(洪孚) 이신바 이 분이 합문지후(閤門祗候) 휘 연(淵)을 낳으시고 이 분이 이조정랑(吏曹正郎) 휘 용(龍) 추봉(追封) 문하시중청화부원군(門下侍中青華府院君)을 낳으시고 이 분이 좌의정(左議政) 청성백(靑城伯) 휘 덕부(德符)를 낳으시고 이 분이 영의정청천부원군(領議政靑川府院君) 휘 온(溫)을 낳으시고 이 분이 영의정청송부원군(領議政靑松府院君) 휘 회(繪)를 낳으시고 이 분이 병조참의(兵曹參議) 휘 린(潾)을 낳으시고 이 분이 증좌찬성 행고성(高城)군수 휘 순로(順路)를 낳으시고 이 분이 成均進士 휘 간(幹)을 낳으시니 즉 공의 증조가 되신다. 조고 휘는 종원(宗元)이니 제현감이고 아버지의 휘는 순(荀)이니 豐德郡守 증사헌부집의(贈司憲府執義)이시다. 執義께서 贊成(企齋)선생: 신광한(申光漢)의 따님과 결혼하시어 가정 율(明宗十年 1555)년 正月7일에 공을 낳으셨다. 공은 兄

弟가 다섯인데 모두 공손하였다. 공은 五兄弟中 셋째로서 天品이 아름답고 和氣가 있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장성하여 착실히 공부하더니 을축(1765)년 공의 나이 35세에 司馬試(進士生員試)에 합격하고 경자년(公年46)에 장락찰방(昌樂察訪) 任命이 되고 을묘년에 금오랑(金吾郎)에 제수되며 경술년(1610)에 사과(司果)로 승진되며 계축년(1613)에 고창현감(高敞縣監)으로 나가고 그 해에 위성원종공신(衛聖原從功臣一等翼社原從一等功臣)이 되고 갑인년(1614) (公年50)에 태복주부(太僕主簿)가 되고 을묘년(1615)에 殿中에 옮겨 漢城判官으로 전근되며 정사년에 형조좌랑(刑曹佐郎)을 거쳐 공조정랑이 되며 무오년에 선공감첨정(繕工監僉正)으로 임명되었다. 이해 가을에 礪山郡守로 나갔는데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고 사치를 피하고 성심으로 백성을 돌보았다. 신유년 봄에 퇴직하고 忠州에 돌아가 가옥 수간을 짓고 여생을 보내려했는데 이때 풍병(風病)이 생겨 이듬해(1622년) 7월 그

公告

青松沈氏大宗會

三十九回定期總會開催

二〇〇九年度第三十九回定期總會를 다 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公私間에 다 망 하 시줄 사료되오나 많이 參席하여 주시기 를 仰望하나이다.

◎ 다 음 ◎

◇ 日時 : 二〇〇九年 四月 二十三日(木 曜日) 午前十一時

◇ 場所 : 서울 중로구 명륜동(유림회관 三층)

◇ 電話 : (〇二) 七四四一〇六七七

◇ 會費 : 壹萬원

◎ 부의안건 ◎

- 一. 二〇〇八年度 會務報告
- 二. 二〇〇八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決算과 承認의件
- 三. 二〇〇九年度 事業計劃 承認의件
- 四. 二〇〇九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豫算(案) 承認의件
- 五. 任員 改選의件
- 六. 其他 宗務에 關한 事項

二〇〇九年 三月 日

청송심씨대중회
會長(職務代行) 沈宜洛

◇ 연락처 : (〇二) 二二六七一七八五七
※ 별도로 개인별 통지가 없아오니 유의하여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挺雄)이며 큰딸은 도사 鄭時諶에 둘째딸은 통덕랑 홍우
공(洪宇宏)에 셋째딸은 處士 조세형(趙世馨)에 넷째딸은
통덕랑 한명경(韓命慶)에 각각 출가했다.

담(紘)은 三男二女를 두니 장남 정신(挺信) 차남 정선(挺
善) 삼남 정의(挺義)이며 큰딸은 찰방 홍극(洪克)에 둘째딸
은 진사 한정상(韓靖相)에 출가했다. 율(纒)은 二男四女를
두니 장남 정빈(挺彬) 차남 정송(挺松)이며 큰딸은 현감 조
공철(趙公澈)에 둘째딸은 이선백(李善伯)에 셋째딸은 흥운

(洪允)에 넷째딸은 현령 조견소(趙見素)에 출가했다. 흘(屹)
의 아들은 정만(挺萬)이고 수(綏)의 아들은 挺漢이고 딸은
한평준(韓平準)에 출가했다. 유(紉)의子是 정해(挺海)이며
서(緒)의 딸은 萬戶 남중택(南重澤)에 출가했다.

宋時保는 五子一女를 두니 큰아들은 孺孝이고 둘째 유
제(孺悌)는 현령이고 셋째는 유충(孺忠)이고 넷째는 유경
(孺敬)이고 다섯째는 유직(孺直)이며 딸은 찰방(察訪) 강성
기(姜聖基)에 출가했다. 內外孫과 曾玄孫을 합하면 백여명

이 되고 官員도 많이 나와서 모두 기록할 수 없기에 이만
그치는 바이다.

번역자 : 前 서기관 풍덕공과 종회장 沈載榮

西紀2000년 청송심씨대동세보편찬시 규장각에 비치된
원종공신록권이 발견되어 조상의 공훈을 기리고자 원종
공신 사적을 추가 기록함. <끝>

朝鮮後期 天才畫家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평전(評傳) 겸재(謙齋)에게 그림을 배우다 - 5

그러니 서화에 대한 안목이 뛰어나 서화가문으로 알려
진 사촌사숙 심정주(沈廷胄, 1678-1750)의 자제 중에서
양자를 데려오고자 했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 심정주에게
는 사순(師淳, 1701-1723), 사정(師正, 1707-1769) 두 아
들이 있고 사순은 청평위의 동복형제의 손자들 중 가장 나
이가 많았으므로 청평위의 봉사손으로 받아들인데 명
분상 하자가 없었다.

이에 심정주와 심사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심사순은
그의 조부와 양부모가 될 당숙 심정보 부부의 뜻에 따라
청평위의 봉사손이 됨으로서 숙종이 진의가 당숙이 되는
왕실의 지친으로 부상한다. 따라서 사순의 생가인 심정주
집안 위상도 덩달아 높아지게 되니 현재가 겸재에게 나아
가 그림을 배울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듯하다. 심익창의 환갑 때 현재는 6세였고, 겸재는
37세로 화명(畫名)을 한창 드날리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정영의 필맥(筆脈)은 조카인 감사 반곡(盤谷) 이덕성
(李德成, 1655-1704)과 손자인 예조판서 각리(角里) 이진
검(李眞儉, 1671-1727)을 거쳐 眞儉의 넷째아들 원교(員
嶠) 이광사(李匡師, 1705-1777)에게 이어져서 동국진체
(東國眞體)를 대성해내며 마무리된다. 현재의 조선남종화
와 바퀴자국을 나란히 하는 진경시대 중반기의 서예경향
이었다. 이는 심사순과 이진검이 비록 양자이지만 내외종
사촌형제 사이였다는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니 원교가 현재의 조선남종화풍을 따라 그림을 그렸다
던지 현재그림에 제사를 써서 남기고 있는 사실로 이를 확
인할 수 있다.

현재 그림에 원교가 제사를 써 남긴 것으로는 간송미술
관 소장의 <삼일포(三日浦)> (그림11)에 그<제사>(그림
10)를 남긴 것을 대표로 꼽을 수 있는데 제사내용은 겸재
의 스승인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이 겸재 그림<해악전



책건우러(策蹇牛驢)

신첩> 중 <삼일포>에 붙인 제사이다. 원교가 현재의 조선
남종화풍을 따라 그린 그림은 간송미술관 소장의 <층장비
폭(層嶂飛瀑)>(그림54)과 <고승완회(高僧玩繪)>(그림55)
가 그 대표적인 예다.

현재에게는 손위형인 심사순 위로 누님이 있었다. 현재
의 누님 청송 심씨(1698년경-?)는 홍주 변천면(番川面) 원
당리(元堂里) 일대(현재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터를 잡고
살던 황용하(黃龍河, 1698년-?)에게 출가하는데 황용하
의 부친 황만(黃漫, 1660-1739)은 그 백씨(伯氏, 말형)인
이조판서 황흥(黃欽, 1639-1730)으로부터 막내인 그에
이르기까지 7형제가 우암(尤庵) 송시열 문하에 드나들
정도로 골수 우암 문인이었다. 심정주의 사촌형인 심정로(沈
廷老, 1653-1712)의 부인 창원(蒼遠) 황(黃)씨(1652-
1725)가 황만의 6촌 누님이었으므로 그 중매 아래 이 혼사
가 이루어졌던 듯하다.

현재의 외증조부 육오당 정경흠(鄭慶欽, 1620-1678)도
우암문인으로 보은에 향장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 혼사는
충청도 명문들이 학연(學緣)과 지연(地緣)에 따라 서울의
명문대가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매개체였을 것이
다. 이들이 결혼하는 시기는 당시 풍습으로 보아 늦어도
13세 이전이었을 터이니 현재가 4세 때인 숙종 3년(1710)
경인년 경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이해 5월에 사천(槎川) 이병연(李秉淵, 1671-1751)은

금화현감으로 부임해 간다. 이 시기 왕실 귀척들의 결혼연
령을 꼽아보면 현종(顯宗, 1641-1674)과 명성(明聖)왕후
청풍(淸風) 김씨(1642-1676)가 각각 11세와 10세였고, 숙
종(肅宗, 1661-1720)과 인경(仁敬)왕후 광산(光山) 김씨
(1661-1680)는 동갑으로 10세였으며, 경종(景宗, 1688-
1724)과 단의(端懿)왕후青松 심씨(1686-1718)는 각각 9
세와 11세였다. 영조(英祖, 1694-1776)는 왕자신분으로
11세에 13세의 군부인(君夫人) 달성 서(徐)씨(1692-1757)
를 맞아들이고, 현재의 종조부 청평위(靑平尉) 심익현(沈
益顯 1641-1683)은 10세에 11세의 숙명(淑明)공주
(1640-1699)에게 장가든다.

따라서 현재집안의 결혼연령도 10세에서 13세 정도였
을 터이니 청평위 심익현의 적장손으로 양자간 현재의 친
형 심사순도 그 생가 조부 심익창이 60세 되는 숙종 37년
(1711) 신묘년 경에는 장가를 들었을 듯 하다. 이때 그의
양부 심정보는 54세였고 양모 전주 이씨는 53세였다. 심
사순은 과옥죄인 심익창의 손자지만 청평위의 봉사손으
로 입후(立後, 후계자로 세움) 됐으므로 연좌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평위공을 비롯한 그 가산(家産)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혼사는 명문가와 맺어질 수 있
었다.

그래서 심사순은 종종 제5남 덕양군(德陽君) 기(岐,
1524-1581)의 5대손 통천군수 이시징(李蓍徵, 1650-
1728)의 손녀 전주 이씨(1701-1777)에게 장가들게 된
다. 이시징은 우암의 고족(高足)제자인 집의 직재(直齋) 이
기홍(李箕洪, 1641-1708)의 재당질이었다. 이때 심익창
(1652-1725)의 양형인 심익선(沈益善, 1627-1696)의 아
들들로 심익창 포래이던 심정로(1653-1712)와 와 심정구
(沈廷考, 1656-1714) 형제는 고성(高城)군수와 통천(通川)
군수로 동시 재직하고 있으며 심익창의 환갑해인 숙종 38
년(1712) 임진에 양군의 군계인 웅천(甕遷) 쌍인암(雙印巖)
에서 만나 군수인(郡守 印)을 풀어 놓고 마음껏 회포를 풀
다 돌아가곤 했다. 그래서 쌍인암이란 지명이 이들 형제
모임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한다.

(洪敬謨, 『冠巖游史』권6. 海嶽仙佛記 甕遷 참고)

潤松文華 韓國民族美術研究所 轉載

<다음호에 계속>

公 告

青松沈氏仁壽府尹公派宗會

二〇〇九年度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忘
世亭公春享節祀奉行日에 開催합니다.

◇ 春享日時 : 二〇〇九年 四月 十八日(陰三
月 二十三日) 十一時

◇ 總會日時 : 二〇〇九年 四月 十八日(陰三
月 二十三日) 十二時

◇ 總會場所 : 南陽州市 梧南邑 陽地里 忘世
亭公墓域

一. 會務報告

二. 監查報告

三. 二〇〇八年度 特別會計收入支出 決算報
告承認의件

四. 二〇〇八年度 一般會計收入支出 決算報
告承認의件

五. 二〇〇九年度 事業計劃(案)承認의件

六. 二〇〇九年度 特別會計收入支出 豫算
(案)承認의件

七. 二〇〇九年度 一般會計收入支出 豫算
(案)承認의件

八. 其他 宗務에 關한事項

二〇〇九年 三月 日

青松沈氏仁壽府尹公派宗會

會長 沈品求

복거한담(卜居閑談) (上)

四世祖 靑城伯公의 일화(逸話)

▷복거: 살만한 곳을 가려서 정함
▷한담: 심심풀이로 하는 이야기

나의 종증대부(從曾大夫) 白雲(姜暹: 강섬을 말함) 선생은 어릴 때부터 석교(釋敎: 불교를 말함)를 좋아하였으며 겸하여 易理에도 밝았다. 약관(弱冠)의 나이를 먹은 뒤에 배필을 잃었으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장가를 들지 않았다. 산 속에 은거하면서 無學國師와 어울려 다녔다. 그가 무학국사를 제일 좋아하게 된 까닭은 부귀한 집안에 태어났으면서도 석교에 관심을 가졌으며 뿐만 아니라 풍수지리를 아주 좋아하여 비밀스런 이치를 묘하게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中略-

무학국사는 언제나 심덕부(沈德符) 재상과 같이 서울의 대궐을 새로 지을 때에 沈德符 재상이 그 역사를 감독하였으니 나(무학대사)하고는 1년여 동안 같이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 때 다른 훈신(勳臣)이나 명료(名僚)들은 나를 보면 반드시 좋은 유택(幽宅: 죽은 사람의 집, 즉 무덤) 자리를 구하여 달라고 하여 거의 쏘다지 않았다. 어떤 때에는 그렇게 해주고 어떤 때에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유독 沈德符 재상은 끝내 그에 대하여 말이 없었으니 無學國師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조용히 그를 찾아가 말하기를 “대감께서는 명당자리를 구하는데 뜻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1년이 다 되도록 한마디 말씀이 없습니까?”하니

沈德符 재상이 말하기를 “내 어찌 陰宅(묘 자리)명당자리를 구하는데 마음이 없겠소. 다만 구하는 것이 남들과 다른 점이 있고 世間에서도 이런 땅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히 가벼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릇 음택은 無學國師께서 구한다면 반드시 큰 명당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無學大師께서 만약에 세상에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陰宅을 구하는 것은 뒤로 계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상서롭지 않다는 땅을 알 수 있겠습니까? 본인 생각에는 원컨대 큰 명당자리로 陽宅(집터)을 얻어서 대대로 자손들이 여기에서 태어나 여기에서 자란다면 도리어 한때의 陰宅의 좋은 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하니

無學國師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서 일어나 절하고 말하기를 “훌륭한 말씀입니다. 내가 산에서 나온 뒤에 처음 듣는 말입니다.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법인데 더군다나 좋은 집터 하나쯤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마침 유심히 보아둔 곳이 있는데 한번 가서 봅시다. 어떤 사람이 더 큰복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집터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재상께 보여드리겠습니다.”고 하였다.

沈德符 재상이 다급히 그곳을 구하였기 때문에 다음날 날이 밝자 수레 하나와 말 한 필로써 남산으로 가서 서쪽산기슭의 내막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곳은 百世동안 발복하는 좋은 땅으로서 자손들이 거의 조정에서 녹을 먹을 것이며 海東(발해 동쪽에 있는 나라, 즉 옛날 우리나라를 말함)에서 대대로 고관자리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三百步 안쪽으로는 모두 좋은 집터입니다.

이곳은 거북이가 쉬고있는 형상인데 세 번 칩거(蟄居)하고 세 번起居하니 六壬과 六癸의 사이에 해당되며 규벽(奎壁: 경서를 조그마하게 줄여서 박은 책)이 거북의 머리에 비취고 있으니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는 文章가로서 한유(韓愈)와 柳宗元과 같으며 시를 잘 짓고 글씨를 잘 쓰며 죽은 뒤에도 그 이름이 끝없이 전해집니다.

땅에서는 한번은 옮길 징조가 있으나 결국에는 그의 소유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고 하였다.

沈德符가 급히 집을 지으려고 하니 無學國師가 그를 말리면서 말하기를 “거북이 발이 아직 땅위로 나오지 않았으니 만약에 급히 집을 지으면 이롭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5~60년이 되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살게되면 거북이 발이 스스로 드러날 것이니 모름지기 크게 木石을 다스려서 흙 모양이 된 것이라고 일컫게 하면 됩니다.”고 하였다.

沈德符가 다른 사람이 먼저 차지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무학국사와 서로 상의하여 먼저 두어 칸 書室을 세워서 자손들을 위해 겨울과 여름에 工課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완성이 되자 무학국사가 말하기를 “아낄만한 곳이구나! 水運이

지금으로부터 百年안으로 이를 것이니 과거에 합격하는 귀한 인재들이 여기에서 모두 나올 것이다”고 하였다.

無學國師가 언제나 나한테 일컬었기 때문에 내가 또한 가서 보았더니 과연 거북이 모양처럼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일을 아는 법칙의 말이 날날이 서로 부합되는 것은 모두 우의(寓意: 다른 사물에 빗대서 던지시 비춤)하고 태어날 때부터 땅의 이치를 보는 수(數)에 밝은데 있는 것이지만 지형의 법칙을 취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속사(俗師)같은 경우에는 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한갓 법칙만을 배우니 크게 우원(迂遠: 방법 태도등이 직설적이지 않음)할 뿐이라고 말하였다.

姜玩 撰(강완이 지음)에서 발취

-文化部-

<다음호에 계속>

柱 聯 (주련)

本 柱聯은 咸悅 二世祖의 齋室인 永慕齋의 앞줄 기둥에 걸려있는 글이며 글을 쓴년대와 작자는 미상이다.

屹山獻秀如揖如控(홀산헌수여읍여공)
우뚝 솟은 산이 빼어났으니 머리숙여 읊(揖)하는 것 같도다.

金龜靈原維桑老楊(금귀령원유상노양)
신령스러운 언덕에는 뽕나무와 버드나무가 서있도다.

彌千萬年德人之塋(미천만년덕인지영)
德人の 무덤은 몇 千萬年이나 영원무궁 하리로다.

呼空種芝(호공종지)
하늘에 호소하니 神仙을 내려 보냈도다.

雲歸頭流鶴棲靑松(운귀두류학서청송)
구름은 두륜산으로 돌아가고 학은 푸른 소나무에 깃들었도다.

心月相照清夜相尋(심월상조청야상심)
명월처럼 밝은 마음을 맑게 개인 밤에 서로 찾았도다.

不受其責永保性命(불수기책영보성명)
죄를 짓지 아니하면 영원히 생명을 보전하리로다.

靑松沈氏安孝公宗會

端午節祀奉行 및 定期總會

二〇〇九年度 安孝公 端午節祀 奉行 및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많이 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日時: 二〇〇九年 五月二十八日(十時) 端午節祀奉行 · 十一時 總會開催
- ◇ 場所: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四〇一番地 (安孝公墓前 · 齋室)

가 · 二〇〇八年度 會務報告 나 · 附議案件

- 一 · 二〇〇八年度 決算(案) 審議 · 承認의件
- 二 · 二〇〇八年度 利益剩餘金處分(案) 承認의件
- 三 · 二〇〇九年度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案) 承認의件
- 四 · 二〇〇九年度 議決權 委任 承認의件
 - 宗中財產取得 및 處分에 關한事項
 - 任員認准에 關한事項
 - 宗事와 關聯된 訴訟修訂事項
 - 追加更定豫算(案) 審議 · 議決에 關한事項
 - 其他 主要宗務에 關한事項
- 五 · 任員選出의件
- 六 · 當面懸案事項 報告
- 다 · 其他 討議事項

二〇〇九年 三月 日

靑松沈氏 安孝公宗會

會長 沈斗燮

◇ 연락처 : 〇三一-二五三一八〇六〇
二五四一八〇六六

13世祖 諱 渙公 壬辰倭亂 鬪爭記 - ①

1. 國恥의 壬辰倭亂

蔚山教授 沈公 휘 환(渙)은 13世祖로 將仕郎參奉公 휘 원공(元恭)의 외아들로 태어나셨다.

祖父는 內禁衛公 휘 황(滉)이시고 曾祖는 휘가 광형(光衡)으로 戊午土禍(燕山君4年 : 1498) 때 임금에게 직간(直諫)하다가 미움을 받아 울산 목숙도로 귀양을 갔다가 中宗朝에 풀리어 校書館判官으로 除授되었으나 사양하고 울산에 世居地로 삼으니 入鄉祖가 되었다.

公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글읽기를 좋아해 7歲때 이미 四書六經을 탐독하고 孫吳의 兵書를 즐겨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다. 자라면서 몸가짐이 단정하고 근엄하며 심성이 후덕하니 사람들이 大人의 재목이라 하였다. 그러나 일신의 영달에는 뜻이 없어 과거에 나가지 않았으며 강당을 짓고 麗泉精舍라 하고 後學을 강의하니 주위에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公이 46세에 이르러(宣祖24年 : 1591) 시국이 어수선하고 점점 불안하여 미구에 왜구가 남침할 것이라는 소문이 횡행함에 민심이 극도로 흉흉하였다. 이러 자 나라를 걱정하는 蔚山儒林들이 하나 들씩 모이기 시작하였다. 이해 3월 3日 유림들은 朴鳳壽 沈渙 尹弘鳴 李遇春 朴文 등을 필두로 18人의 동지들이 無里龍山에서 회합을 하고 만약 倭侵이 있을 시를 대비하여 대책을 세우고 또 공이 여러 지사들과 함께 文殊山 靑松寺에서 다시 모여 의논하기를 국운을 살피니 기미성(箕微星)의 빛이 붉고 요기(妖氣)가 들렸으니 동남쪽에서 兵禍가 있을 것이라는 징조가 있어 미구에 국가에 變故가 생길 것이라 예언하고 만일 국가가 위태로운 때를 당하면 나라를 위하여 모든 동지들이 한 몸이 되어 싸우고 죽기로 盟約 하였다

때는 宣祖25年(1592) 4月 14日. 걱정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다. 日本의 首領 豊臣秀吉이 小西行長 加藤清正등을 선봉장으로 삼아 15만 대군을 이끌고 釜山浦로

침공하여 함락하니 국난의 7年이 시작된 날이었다.

4月 15日 倭敵은 東萊와 釜山鎭城, 西生 浦萬戶鎭을 단숨에 함락하고 이어 三路로 나뉘 물밀 듯이 쳐들어 왔다. 蔚山과 慶州는 左路로 올라오고, 加藤清正의 2만3천의 왜적들은 16日 彦陽邑城을 함락시킨 다음 軍을 2陣으로 나누어 1陣은 17日 蔚山邑城과 兵營城을 함락하고 또 1陣은 北上하여 慶州府城과 尙州城이 倭敵에게 떨어지니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鎭)은 도망하고 말았다.

4月 21日. 公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나라 일이 이지경인데 백성이 된 자로 어찌 편안히 살기를 바라겠는가!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오직 죽을 따름이라 하고 義士 李景淵을 찾아가 서로 의논하고 의거를 꾀할새 朴鳳壽를 大將으로 삼고 贊劃(軍의 움직임을 계획하고 助力함)에 沈渙, 左翼將에 朴應禎을 右翼將에 張希春, 左衛將에 高處謙, 右衛將에 李逢春, 從事官 李翰南, 運糧護軍에 李景淵, 左提軍에 朴震男, 右提軍에 金應邦등을 삼고 각기 署名하고 軍法을 시행 하였다.

이로써 義兵將들은 各各 姓名을 記載한 大將旗를 앞세우고 旗號와 五方旗를 세워 戰線으로進軍하니 그 수가 千여명이다.

한편으로 忠州에서는 宣祖가 믿고 보냈던 道순변사(都巡邊使) 신립(申碩)이 達川에서 戰死하니 왜병은 과죽지세로 밀고 올라와 드디어 5月 2日 서울까지 함락되고 宣祖는 義州로 몽진(蒙塵)하기에 이르렀다.

5月 5日 堅川至를 비롯하여 柳汀 柳伯春이 慶州로부터 500의 義兵을 거느리고 달려와 합류하고 5月 7日 南과北에 兩將旗를 세우고 적을 격파할 계획을 세웠다. 李景淵, 沈渙 張希春, 李翰南, 朴鳳壽, 高處謙, 外 여러 義士들이 함께 의논하고 作戰을 세움에 그 날밤三更에 곧바로 병영에 들어갈 군사를 나누어 四部隊로 편성한 후 四門에 다 매복시키고는 북을 치며 돌격하니 왜적들이 놀라 四門을 향해 도망하다가 북병들에게 數百명이 격살당하고 城을 기습하여

軍器와 창검은 물론 군량미와 군수물자를 크게 노획하여 山城으로 돌아오니 軍勢가 크게 떨치고 사기가 고조되었다.

渙公이 하루는 大將 朴鳳壽에게 말하기를 적병이 반듯이 물러올 것이니 성중에다 기치를 높이 꽂고 회양동 수풀사이로 들어가 북병을 하고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왜병을 협공하면 크게 이길 것이라 하더니 과연 왜군이 쳐들어 왔다. 伏兵을 하고 있던 의병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고 북을 치며 공격하니 적병이 당황하고 있을 때 마침 慶州의병들이 당도해 兩軍이 함께 협공함에 적병의 떨어진 머리가수 百級이요 노획한 무기도 심히 많으니 公의 그 戰法에 모두들 감탄하였다.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손자병법을 탐독했던 덕이었다.

本軍義士 서봉호, 서인중, 유정, 유백춘, 유흥춘, 이승금, 박준 등이 차례로 우군을 일으켜 적군이오면 서로 구원하고 적군이 물러가면 城을 굳게 지키니 적군이 감히 달려들지 못했다. 때에 巡察使 한호순이 일곱 고을 軍士를 문경 唐橋에 모일새 公이 이경연, 유정, 서몽호, 이한남과 더불어 왜군과 싸워 크게 이기고 전탄에 돌아와서 慶州義士 최진입과 합세해 추평에 달려가 왜군과 접전하니 왜적이 크게 패하여 도망하였다.

공은 討賊계획을 세우고 병영성을 기습하여 큰 전과를 올리고 기장과 西生浦에서 수로를 따라 들어오는 적을 신출귀몰한 전법으로 물리치고 開雲浦戰에서도 큰 전과를 올렸다.

癸巳年(1593) 2月에 太和江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10月 29日 鷗江會盟에서 의병들의 결의를 뭉치고 丙申年(1596) 3月에는 八公山會盟에서 講和에 반대하고 끝까지 討賊 할 것을 결의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 8 -

◎ 忠義祠는 2000年 6月 5日에 垈地面積 6,013㎡에 建物이 11棟으로 지어졌으며 祠堂에는 功臣과 倡義使 239位의 神位를 모셨다.

* 忠義祠는 3年任期로 理事長을 選任하는데 現在는 蔚山의 仁壽府尹公派 11世祖 內禁衛公 宗會長이신 沈應輔씨가 蔚山 壬亂義士崇慕會. 忠義祠, 理事長으로 在職中입니다.

沈영감 심민섭



派(地域) 宗會旗 製作 申請

2006년부터 우리門中의 家章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각 派宗會 또는 地域宗會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회기를 교체하여야 하는바, 대종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기존의 종회기를 교체하거나
- ▶ 宗會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派(地域)宗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宗會名	靑松沈氏	宗會
住所		
電話番號	宅:	- -
	휴대폰:	- -
제작금액	150,000원 (깃대포함 : 180,000원)	

2009년 春季 時享日表

世	휘(諱)	陽曆	曜日	陰曆	所在地	世	휘(諱)	陽曆	曜日	陰曆	所在地
始祖	文林郎公(휘: 洪孚)	4월 5일	日	寒食	靑松邑 덕리 보광산	五	三韓國夫人	4월 9일	木	3월 14일	安城市 금광면 오흥리 능말
	中臺山所	4월 5일	日	寒食	靑松邑 덕리 보광산	六	良惠公(휘: 石雋)	4월 15일	水	3월 20일	龍仁市 포곡면 동막동
二	閣門祗候公(휘: 淵)	4월 6일	月	3월 11일	咸悅邑 남당리 남당산	七	忘世亭公(휘: 璿)	4월 18일	土	3월 23일	南楊州市 오남읍 양지리
三	靑華府院君(휘: 龍)	4월 8일	水	3월 13일	安城市 당왕동 산19	王后	昭憲王后	4월 28일	火曜日		驪州郡 능서면 英陵
三	配位 金氏	4월 8일	水	3월 13일	安城市 도기동 산64	王后	仁順王后	4월 26일	日	4월 넷째일요일	노원 공릉동(태릉內 康陵)
四	靑城伯(휘: 德符)	4월 10일	金	3월 15일	漣川 미산면 아미리 110	王后	端懿王后	3월 22일	日	3월 넷째일요일	구리시(동구릉內 惠陵)
四	配位 淸州宋氏	4월 12일	日	3월 17일	淸州市 분평동 산8		淑容沈氏	4월 19일	日	4월 셋째일요일	은평구 진관동
四	岳隱公(휘: 元符)	4월 20일	月	3월 25일	靑松郡 파천면 덕천 慶義齊		世宗大王	4월 8일	火曜日		驪州郡 능서면 英陵
五	安孝公(휘: 溫)	4월 5일	日	寒食	水原市 영통구 이의동		宗廟大祭	5월 3일	日	5월 첫째일요일	종로구 종로3가 宗廟

宗 事 消 息

五世祖 安孝公(諱 溫)忌辰祭奉行

2009년 1월 19일(음 12월 25일)



初獻: 文鎮 亞獻: 鍾赫 終獻: 應植
大祝: 洪燮 執禮: 相稷
執事: 彦村 載澈

六世祖 恭肅公(諱 滄)忌辰祭奉行

2009년 2월 6일(음 1월 12일)



初獻: 仁輔 亞獻: 相雄 終獻: 元燮
大祝: 良燮 執禮: 洪燮
執事: 教澤 載澈

三世祖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山所



▲안성시 도기동 산 64 山所 돌레석 설치(2009. 2. 23)

五世祖 安孝公(諱 溫)正月節祀奉行

2009년 1월 26일(음 1월 1일)



初獻: 在安 亞獻: 文洙 終獻: 彦浩
大祝: 洪燮 執禮: 載玉
執事: 應植 載澈

『靑報會』 동정

守鐘寺 10시30분에 운길산역에서 12명의 회원이 집결하여 운길산 610m 정상을 향하여 출발 1시간30분 만에 수종사에 도착하니 사찰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로 먼저 세분이 도착하였다.

경내를 두루 살펴보니 운길산 400m 중턱에 자리잡은 수종사의 경관이 빼어났다. 앞에 펼쳐진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이 마치 바다와 같은 넓은 팔당호가 손에 잡힐듯 가까이 자리하고, 경관 또한 장엄하다.

회원전원이 대웅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사찰내 수령500년에 높이35m 둘레6.5m의 은행나무 한 그루가



▲수종사 대웅전 앞에서

높은 산중에 있는 것이 참 신기할 따름이다. A팀 회원은 정상에 도전하고, B팀 회원은 하산하여 오후2시에 합류하였다. 奉燮會員의 점심대접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라고 외치며 건배하고 오늘의 산행을 끝냈다.

忠翼公 配位 完山李氏 忌辰祭奉行

2009년 2월 14일(음: 1월 21일)

初獻: 相稷 亞獻: 正燮 終獻: 完燮
大祝: 相直 執禮: 載玉 執事: 載澈 佑燮

명 창

시조시인 심성보 (부경대학교수 공학박사)

매초롭고 까만머리 옥비녀 하얀 동전
감추인 버선발에 남꼴동 감사고름
허공에 즐던 가얏고 합죽선이 즐을 건다.

새벽별 눈동자는 구구절절 아롱아롱
파르르 어깨선이 가슴을 저며 놓고
심청가 이별대목에 피가 솟아 슬퍼라.

폐부를 뚫는 득음 등기등 얼썩썩
고단한 내 하루 공산을 넘어가고
명창이 여울지는 밤 아니 신선이느뇨.



장남 심재빈

정평군 출신 故 심원섭 선생

광복절에 독립유공자로 대통령상 포상

세시위를 주도적으로 참가하였다가 손병희 선생 외 266인이 일경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고 한다.

더욱이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11,13,15권 및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와 일경의<조선독립선언서 관련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고 심원섭 선생은 일경의 심문에 독립선언 시위에 참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곧 독립될 것을 믿는다고 진술하는 등 젊은 학생의 기개를 그대로 나타냈으며 당시 일경의 심문 조서와 판결문 원본은 현재 국가기록문서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다.

고 심원섭 선생은 손병희 선생 등과 같이 옥고를 치른 후 가까스로 학업을 마치고 고향에서 농업

과 신상국민학교에 재직하다가 일제 말기 신병으로 타계하였고, 현재 장남 심재빈은 6.25전쟁 때 단신으로 월남, 현재 강릉시 성남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차남 심재방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고 심원섭 선생의 가까운 친척으로는 전 함경북도지사를 지내고 주문진에서 영동산업을 경영하던 고 심상열씨와 그 아들 심구섭(남북이산가족협의회 회당 겸 함남 정평군 군민회 부회장)이 있다.

한편 이번 포상은 국가보훈처에서 북한 출신 독립유공자를 이북5도청을 통해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 공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鎮浦大捷의 遺憾 (진포대첩)



▲ 진포대첩 址

필자는 四世祖이신 靑城伯, 定安公(휘: 德符)의 22代孫 安輔입니다.

靑城伯, 定安公께서는 우리 沈門을 별 열(閥閥)의 家門으로 發興시키고 계계승승(繼繼承承)잠영세족(簪纓世族)으로서의 기초를 닦으신 분이므로 우리 후손들은 흠

송(欽崇)드리고 있다.

그리고 공의 많은 행적 중 麗末 1380年(禡王 6年 庚申)의 歷史上 빛나는 진포대첩(鎭浦大捷)이 있음을 歷史工夫와 世譜를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다.

2008년 10월 군산시『은과유원지』입구에서 우연히 鎭浦大捷의 記念碑를 발견케 되어 그 內容을 자세히 읽고 깜짝 놀라 그 앞에서 기념비의 내용과 함께 별첨으로 첨부한 사진을 찍게되었다. 내용에서 보듯이 화통도감(火桶都監)으로 부원수인 최무선(崔茂宣)에 대해서만 각인되어 있었다. 엄연히 진포대첩은 도원수 심덕부, 부원수 최무선, 상원수 나세(都元帥 沈德符, 副元帥 崔茂宣, 上元帥 羅世)가 靑山 앞 바다인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시킨 대첩임을 歷史는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의 歷史的 高증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별첨① 인터넷 naver(네이버)의 진포해전. 별첨②의 東史綱目과 高麗史節要에서 진포해전, 별첨③의 全北地域 獨立運動史 진포해전, 별첨④의 靑松沈氏陽智公派世譜 靑城伯행적을 제시하여 우리 후손에게 알리고 어떻게 하면 바로잡아 나갈 수 있을까 宗報를 통하여 제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全北은 그 어느 곳보다도 조상님들의 숨결과 열이 깃든 곳으로 完州郡華山에 五世祖 仁壽府尹公(휘: 滌)의 묘소가 있고 益山市威悅邑南堂山에 二世祖 합문지후공(閤門祗候公 휘: 淵)의 묘소가 있을 뿐 아니라 二世祖 묘소의 失傳으로 인한 10년 송사 끝에 찾으신 十六世祖 竹溪公(휘: 圭)의 묘소가 靑山市臨陂교동에 안장 되어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또한 청성백 정안공의 진포대첩지가 있는 곳으로 이를

연계하여 차례로 참배케 하고 진포대첩비를 새로이 만들어 그 境內에 修鍊院을 마련하여 새만금의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雄志의 꿈을 펼쳐나가도록 하고 뿌리 찾기 교육의 장으로 育成시켜 나가면 어떨지... 진포대첩지를 보고 자손으로서 몇 마디 소회(所懷)를 적으면서 가름합니다.

沈 安 輔

鎭浦大捷址 案内碑文

이곳 鎭浦는 고려 때 호남지방의 곡식을 서울로 해상운반 하던 요충지로 왜구의 노략질이 심하였던 곳이다.

고려우왕(禡王) 6年(1380) 8월 왜구가 병선 500여척을 이끌고 이곳을 침입하였을 때 화통도감(火桶都監) 제조관 崔茂宣장군이 발명한 화약 화포로 왜구를 무찔러 크게 승리한 대첩지이다. (1989년12월20일)

東史綱目과 高麗史節要(記錄文)

1380년(우왕6년) 8월 왜구들은 500척을 헤아리는 대규모 해적선단을 구성해 鎭浦로 침구(侵寇)하였다. 진포의 위치에 대해, <고려사>에서는 지금의 靑山市域인 임피현(臨陂縣)지역이라 하고 있으며 <東史綱目>에서는 충남 서천(舒川)의 남쪽 26리라고 있어 대체로 조운선(漕運船)이 드나드는 금강하구 일대로 여겨진다

진포에 들어 닦친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 沈德符와 羅世 그리고 崔茂宣이 전함100척을 이끌고 출진하였다. 이 鎭浦海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고려사절요>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왜적의 배 500척이 진포 어귀에 들어와 큰 뱃줄로 서로 잡아매고 군사를 나누어 지키며 드디어 언덕에 올라 각 州郡으로 흩어져 들어가며 마음대로 불사르고 노략질하니 시체가 산과 들에 덮이고 곡식을 그 배에 운반하느라 땅에 쏟아진 쌀이 한자 두께나 되었다. 심덕부, 나세, 최무선 등이 진포에 이르러 최무선이 처음으로 만든 화포를 써서 그 배를 불태우니 연기와 화염이 하늘에 넘쳐 적이 거의 다 타죽었고 바다에 빠져 죽은자 또한 많았다. 적이 포로가 된 자들을 모조리 죽여 시체가 산같이 쌓여서 지나가는 곳마다 피의 물결이었다. 오직 330여명이 도망하여왔다. 죽음을 벗어난 적은 옥주(沃州)로 벗어나서 육지에 있는 적과 합세하여 利山 永同縣을 불태웠다.

全北地域獨立運動史

(上略) 그러나 진포해전의 대승첩은 최무선의 화약무기

에 의한 우리의 쾌거이기는 하였으나 배를 잃은 적들이 퇴로를 잃고 육지로 빠져드는 바람에 부차적으로 또 하나의 패잔잔류병을 남기게 하였으니 이것이 또한 무서운 화근이 되어 큰 고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패잔병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당시 병마도元帥 李成桂장군에게 맡겨진 防戍임무다. 이성계가 이 防戍임무의 결정적 역할을 전북 남원 운봉의 荒山戰에서 이뤄내니 최무선의 진포대첩에 의한 육지로 도망한 패잔병 섬멸 또한 우리 全北地方이 되었다는 우연의 일치가 되는 것이다.

靑城伯行狀中에서

庚申에(1380) 왜적이 戰艦 千艘로 우리나라의 남쪽변방을 침략하여 지나가는 곳마다 싹 쓸어 남는 것이 없었으나 여러 장수가 막지 못하여 용안진포(龍安鎭浦)로 공격하여 들어오니 그 형세가 너무 컸다. 신우가 공에게 명하여 높고 큰 배 40척을 가지고 가서 토벌하니 적은 배를 서로 붙들어 매어 진을 치고 창과 화살촉 부디 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공이 지략으로 두려운 빛 없이 일거에 모두 섬멸하니 이로부터 왜적이 다시는 함부로 날뛰지 못하였다.

- 끝 -

4월을 맞으면서

화사한 웃음 피어나는 계절
4월은 어디를 가도
희망의 꽃망을 가득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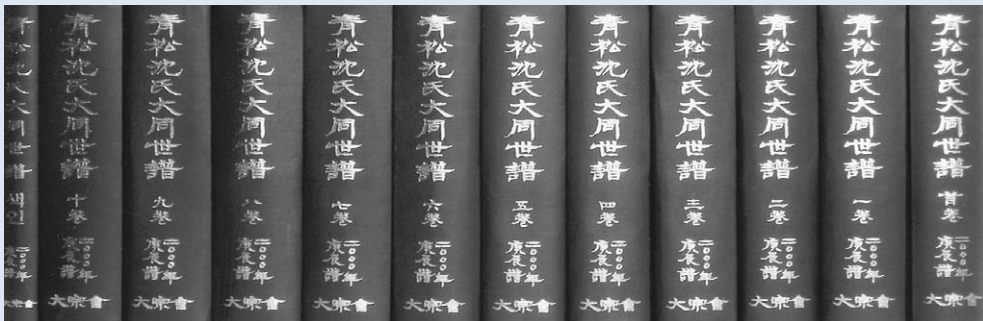
이사 심의표

서로 손 마주 잡고
행복의 문 노크하며
즐거운 봄나들이 생기 넘친다.

아름다운 미래 설계
꽃잎의 멋스러운 춤사위로
충만한 삶 향유하며

하얀 빨강 노랑 연초록
그윽한 꽃향기를 한 아름
사랑은 활활 피어오른다.

大同世譜(庚辰譜) 申請案內



CD롬 2개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경진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12권(수권, 자손록 10권, 색인 1권)과

CD롬(대동세보 전 내용과 시조 ~ 4세조 산소 동영상)을 수록하였으며, 모든 한자에 음 표기함)

◆ 보급가격 : 22만원(CD롬 포함), 별도 구입(CD롬 : 20,000원 / 수권 : 40,000원)

◆ 송금구좌 : 농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중회)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중회(02-2267-7857, 팩스 :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입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shim.or.kr)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동세보 속편(靑松沈氏世考選, 祭享笏記, 宗보축쇄판, 手帖, 뺏지 포함) : 100,000원

『책자 강매』 주의

대중회를 사칭하면서 책자 구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책자를 보내오면 대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반송하시기 바라며, 다른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회에서는

대동세보(경진보 : 22만원)와 대동세보 수권속편(10만원) 외는 보급하는 책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9世紀에서 舊韓末까지의 國難事件 (下)

㉗ 甲午更張

1894(고종31)년 개화당이 집권한 후 재래의 문물제도를 근대적 국가형태로 고친 일. (一名 甲午改革)

이 개혁사건은 일본이 자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나 이로 인하여 한국의 모든 제도가 종래 보다 진일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1894년 일본은 조선에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청나라와 대원군 민비의 세력을 축출하고 갑신정변으로 일본에 망명하였던 朴泳孝, 徐光範을 귀국시켜 입각시키고 洪範 14조를 만들어 내정개혁을 꾀하였다. 이 흥범 14조는 1895(고종32)년 1월 7일(음. 94년 12월 12일) 국왕과 세자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대묘의 앞에서 서약한 후 선포한 것으로 이는 청나라를 멀리하고 대원군과 민비의 세력들을 밀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 내용을 대강 보면

- 청나라에 의지하지 않을 것
- 종래 혼합되어 있는 왕실 사무를 분리하고
- 징병제도를 실시하고
- 민법 형법을 제정하여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 문벌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고
- 세금을 징수하는 것 등이다.

일본이 이런 일들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해에 일어난 동학란을 평정하여 세를 몰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㉘ 淸日戰爭

1894~1895년 사이에 일어난 淸國과 日本의 전쟁

日本은 조선 진출에 방해가 되는 淸國을 축출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한번쯤 전쟁을 치러야 했다. 1894년 동학란을 평정한 일본은 명치유신 후 갑자기 팽창한 군력을 앞세워 8월 1일 청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육군은 咸鏡, 평양에서 승전하면서 요동(遼東)을 공격하였다. 해군은 豊島(아산만 앞) 黃海에서 淸海軍을 격파하고 나아가 여순을 陸海兩軍이 공격하여 점령하니 淸國은 하는 수없이 다음해 화의를 청하고 시모노세키(下關)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국은 조선에서의 일본의 위치를 확고히 인식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배상금 2만량과 대만, 팡호열도(澎湖列島) 등을 割讓받았다. 이제 淸國이 물러나고 필연 러시아와 대립하는 입장이 되었다.

㉙ 아관파천(俄館播遷)

1895년 9월 閔妃가 親露政策을 쓰는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있던 日本공사 미우라 (三浦梧樓)에 의해 시해당한 사건

민비는 開化黨을 박해하며 事大黨으로 다시 일어났으나 甲午更張후로 그 빛을 잃자 親露策으로 일본을 압박하였다. 1894년 이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親日派와 결탁하여 1895년9월 2~30명의 자객을 동원하여 민비를 시해하고 시체를 비단 홑 이불에 싸서 불태워버렸다.

㉚ 아관파천(俄館播遷)

1896년 2월 11일부터 약 1년 간에 걸쳐 高宗과 太子가 러시아 공관으로 옮겨져 거처하던 일.

乙未事變(민비가 日人들에게 시해진 사건)이 있은 후 陽曆사용, 종두법(種痘法) 및 우편제도 시행, 단발령 등을 시행하였는데 민비 시해사건과 단발령의 시행을 반대하는 백성들의 분노로 義兵이 일어났다. 모든 친위대가 지방의 의병봉기를 진압하고 있었는데 이사이 한성에 친위대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친로파인 李完用과 李範晉 등이 나와서 러시아 공사와 결탁하여 러시아 水兵 100명을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시키고 민비 시해사건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던 고종과 태자를 眞洞의 러시아 공관으로 옮겨 모셨다.

이와 동시에 총리 金弘集 大臣 鄭秉夏, 魚允中等은 난민에 피살되고 兪吉準 趙羲淵 張博 등의 각료와 여러 親日派들은 日本으로 망명하였다. 이에 친일내각이 무너지고 친로파인 朴定陽을 首相과 內相을, 李完用은 外相, 學相, 農相을 겸하고 李允用은 軍相등을 맡으며 그 외에도 많은 대신 등이 등장하였으며 내각이란 용어도 친일이라 하여 議政府로 고치고 기타 여러 가지 제도도 고쳤다. 이렇게 되자 러시아는 노군으로 임금을 둘러싸고 정부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었다.

러시아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정부를 위협하여 여러 가지 利權을 가져갔는데. 그 중에도 慶源, 鍾城의 채광권(採鑛權)을 비롯하여 森林採伐權, 서울 元山간의 電信線을 시베리아 선에 연결하는 권리 등을 손에 넣었다. 또 러시아군은 우리군의 훈련을 맞고 마치 우리나라 관리처럼 행사하였다. 이렇게 1년을 지낸 뒤 高宗은 내외의 권고와 압력으로 1897년 2월 25일 慶運宮(지금의 德壽宮)으로 돌아왔다. 그 해 8월에 年號를 光武, 國號를 大韓이라 하고 10월에는 皇帝即位式을 거행하였다.

㉛ 露日戰爭

朝鮮末期 우리나라와 만주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러시아와 일본간의 전쟁.

일본은 淸日戰爭을 승리로 이끌어 아세아의 패권을 잡는 듯 하였으나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南進政策을 써 일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1904년 2월 6일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하고 인천 앞 바다와 대마도해협, 旅順港에서의 海戰에서 이겼으나 奉天會戰 이후 주춤하다가 1905년 5월 7일 러시아의 발탁함대가 전멸을 당하고 말았으나 그때 마침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곤란하던 중이었으며 일본도 전투력이 약화되어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중재를 받아들여 9월에 강화회의를 열고 조인을 하게되니 일본이 유리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전쟁이 종식되었다.

㉜ 乙巳保護條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一名 제2차 韓日협약)

일본은 淸日戰爭과 露日戰爭이 승리로 끝나자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를 합방하는 절차 수준의 협약을 한 것이며 이에 응한 參政大臣 韓圭高, 內部大臣 李址用, 外部大臣 朴齊純, 軍部大臣 李根澤, 法部大臣 李夏榮, 學部大臣 李完用, 度支部大臣 閔泳綺, 農商部大臣, 權重顯, 宮內府大臣 李載克 등 이었는데 그중 朴齊純, 李址用, 李根澤, 李完用, 權重顯의 5명은 계약체결(契約締結)에 찬성한 자로서 이를 乙巳五賊이라 한다. 이때부터 일본은 우리나라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對內외의 모든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사실상의 국권이 사라져버렸다.

이 조약은 총5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한국의 대외교권은 완전히 박탈함은 물론 내정까지도 철저히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국토, 항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서 사실상의 한국은 그 명칭만 유지할 뿐 나라는 없게 되었다.

㉝ 韓日合邦

日本은 1875년 일어난 강화도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조선침탈의 야욕을 들어내고 1894년 甲午更張과 이어 1895년에는 민비 시해사건을 일으키고 淸日戰爭에서 승리하여 조선침탈의 기세를 올리던 중 이를 가로막는 러시아와 1905년 露日戰爭을 일으켜 승전하니 이제는 거리낄 것이 없었다.

1905년 乙巳保護條約으로 일본은 조선에서 사실상의 국제적인 전권을 장악하니 조선은 사실상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1907년 高宗이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냈는데 이것을 이유로 고종을 폐위시키고, 純宗을 즉위시켰으며, 1910년 8월 16일 總理大臣 李完用이 條約案을 제시하고 8월 22일 御前會議에서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달 29일 李完用이 尹德榮을 시켜 황제의 어서(御璽)를 날인케 하니 이로써 조선은 27대王에 519년 만에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 문화부 -

<끝>

靑松源流之曲序章

賀雲 沈重熏

千年을 내린 뿌리 千길 땅속 脈을 뚫고
하늘로 毅然(의연)하게 뻗어 오른 푸른 솔을
洪孚의 歲月을 안고 기리 두고 푸르러라

秋霜이 매섭다하나 얼비치는 푸른 솔에
德符의 그 큰 보람 親和로 나라내니
늑보라 찬바람도 氣勢격고 寥寥(요요)하네.

松籟(송뢰)를 가락삼고 춤을 추던 千年鶴이
蒼空에 내려퍼고 누리를 飛翔(비상)하니
玲瓏(영롱)한 瑞雲속에 日月 더욱 밝아라.

松嶽의 검은 구름 걸우려다 못 걸우고
千秋의 恨을 품고 杜門洞에 드신 님은
萬古로 푸를 靑松은 元符라 하였나니

洪孚와 兩符에서 이어내린 솔 뿌리를
곧곧하게 지킨 血肉 오늘 여기 보람되게
너와 나 德으로써 으뜸겨레 되고지고.

始祖 文林郎公(諱洪孚)

밝은 뜻 높이 세워 千年 앞길 내다보신
님의 슬기 님의 사랑이 江山의 빛이오라
저레들 머리숙여 님의 德을 기리나니,

千年을 자란 靑松 우람한 저 모습이
千年前 님의 모습 어김없는 그 모습이니
千年後 저 靑松은 누리마다 푸르러라.

松都에 봄이오면 어린 因緣(인연) 손을 잡고
孔孟의 거룩함을 人倫으로 가르치신
至嚴한 님의 모습 보이는 듯 합니다.

破邪(파사)를 敎訓으로 顯正을 일깨우고
釋迦(석가)의 慈悲(자비)로서 저레앞장 서셨으니
님을 뵈듯 님의 일에 마음 든든합니다.

人事

재훈 : 한국수력원자력 안전기술처
 재련 : 국세청 강동세무서장
 상희 : 국세청 북부산세무서장
 범상 : 경희대 학생지원처장
 在桂 : 법무부 대구고검 검사
 載敦 : 법무부 공주지청 지청장
 在千 : 법무부 전주지검 부부장
 尙補 : 한전산업개발 부산(실장)
 재만 :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4급)
 대섭 : 삼성증권 총괄지점장 상인
 영완 : KB신용정보 지점장 부산
 혜영 : 성결대 동북아연구소장
 문섭 : 외환은행 개인전략영업본부 ARM지점장
 봉종 : 외환은행 개인전략영업본부 ARM지점장
 학진 : 법무부 창원지검 검사
 상대 : SBS 편성본부부장급 편성기획팀장
 상권 : KT&G 진해지점 지점장
 재식 : 신탄진 제조장 원료가공부장
 오택 : 국무총리실 정책분석 평가실 평가 정책관
 정희 : 국회사무처 지식경제위 입법조사관
 용구 : 경북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명필 : 인하대학 대학원장
 재진 : 영남대 공학교육 혁신 센터장
 명준 : 한화(주) 화약부문 상무보
 현정 : 법제처 법령해석 정보국 경제법령 해석과장
 상구 : 신한은행 계양구청지점 지점장
 동현 : 국토해양부 과전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 기획단
 재율 : DURNews 편집 2팀장
 우진 : 롯데그룹 호텔롯데 면세점 이사대우
 석무 : 한남대학 경영대학원장
 용보 : 3급 부산지검총무과장
 상련 : 대한주택보증 IT지원부서장
 연수 : 홍보실장(겸 신문방송사 주간)
 규홍 : 대법원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준보 :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태규 : 재판연구관
 재남 : 고등법원 판사 서울
 활섭 : 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심판 : 서울중앙 지방법원 판사
 연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현욱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재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연수 : 제주지방법원 연구법관
 심순 : 법무부 검찰과(4급)
 무경 : 환경부 환경적책실 교통환경과장
 상열 : 중등교장승진
 갑섭 : 교육전문직교감전직
 銀燮 : 서산경찰서 정보 보안과장
 영욱 : 연세대 건강센터 사무부장
 정욱 : (주)G페이스샵코리아 지원본부장(CFO)
 彦淸 : KBS 여의도 복지기금 사무국장
 상목 : 관동대 입학홍보 처장
 임수 : 일진지스플레이 대표
 보균 : 행정안전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민족 독립 조사국장
 정근 : 농수산물 유통공사 재무관리처 자금지원팀장
 덕보 : 경북지방경찰청 총경 정보2

理事會費

奉燮	50,000	2009년	도곡동
龍燮	50,000	2009	안산
英輔	50,000	2009	명륜동
貞燮	100,000	2008-2009	장성
相錄	100,000	2008-2009	장성
載澈	50,000	2009	제기동
載萬	50,000	2008	광탄
泓植	50,000	2009	서산
宜杓	50,000	2009	시흥동
相厚	50,000	2009	안산
洪燮	50,000	2009	봉천동
愚弘	50,000	2009	강릉
相圭	100,000	2007-2008	인천
愚夏	50,000	2009	여의도동
相八	50,000	2009	광주
石煥	50,000	2009	광주
在均	50,000	2009	광주
憲燮	50,000	2009	광주
永鍾	100,000	2007-2008	보령
護雄	50,000	2009	대구
相翰	50,000	2009	쌍문동
愚慶	50,000	2009	光州
載政	50,000	2009	全州
賢錫	50,000	2009	大邱
在圭	50,000	2009	晋州
柱燮	50,000	2009	晋州
載榮	50,000	2008	釜山
茂植	50,000	2009	三陟
相均	50,000	2008	釜山
載玉	50,000	2009	水原
鎮植	50,000	2009	光州
宜哲	50,000	2009	大田
載玉	50,000	2008	安東
文錫	100,000	2008-2009	일산

誠金 感謝합니다

宗報贊助

英輔	100,000	명륜동	판관공파(휘 浚)종회	100,000
載萬	100,000	광탄	신천공파 춘천종회	100,000
상조	100,000	대림동	춘천신천공파회장(相汶)	100,000
창용	30,000	영주	상만	50,000 동대문
정규	50,000	괴산	인섭	50,000 잠실
만섭	50,000	집촌	興輔	50,000 인천
흥섭	30,000	부산	金堂山宗會(光州)	400,000
귀동	30,000	원주	金浦 하성종회	150,000
재권	100,000	신정동	화북	50,000 양산
潤度	50,000	응봉동	愚慶	50,000 光州
운섭	100,000	대조동	在圭	100,000 晋州
宜杓	100,000	시흥동	忠翼公宗會(양평)	100,000
의용	100,000	암사동	효창공종회 회장 興燮	100,000

信川公派 春川宗會 任員名單

總會長 萬澤 相汶 清澤 相福 尙眞

副會長 亨택 화섭

理事 元섭 남섭 현택 청섭 완택 상진

監事 昌소 의섭

會務 昌소 의섭

顧問 清澤 相福 尙眞

준섭 봉섭 기섭 건섭 종섭

訃告

沈塔燮(大宗會理事, 咸悅 有司, 安孝公宗會理事)

塔燮 有司님께서는 2世祖 閔門祇侯公 墓域管理에 獻身의으로 奉事하셨으며, 애석하게도 2009년 2월 12일 원광대학병원에서 宿患으로 別世하셨습니다.

아 들 : 載錫 載厚 載根

딸 : 明淑 明花

祝

이학박사 취득

심성기(심병관 인제청송심씨종회장의 子)군은 강원대학원 박사과정(컴퓨터학과)을 이수하고, 논문(소나무 성장 알고리즘에 의한 PgSP 시뮬레이터 설계와 구현)이 통과되어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 (2009년 2월 20일)

祝

정부 3.1절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애족장

심치경 · 심치규

독립유공자 (2005년 8월 15일)

건국포장 및 훈장 (2008년 12월 3일)

沈能奎

諱 能奎 (字 星五, 號 菊圃) 公께서는 哲宗 1850년 庚戌 4월 7일 청송군 파천면 덕천동에서 출생하여 한학자로서 학문을 정진하시며 處士形士林 선비이셨다. (유고 소장) 1895년 乙未사변과 단발령이 있어 이에 분개하여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봉기하였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덕천동에서 덕망이 높은 儒林들과 의전활동에 참여하여 왜군과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독립운동에 참여하시었다. 1897년 정유12월 29일에 생을 마감하시었다.

청송군 파천면 덕리 21 소류정(국가보훈 현충사 제31-1-50호로 지정됨. 경전과 학문을 닦던 곳)에서 발견된 의전활동을 기록한 적원일기 소장)

건국포장 및 훈장은 증손자 沈相根 받음.

송금안내

찬조금 또는 종보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청송심씨대종회)
- 농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종회)

* 2008년 6월 5일자로 신규 개설

청송심씨대종회
전화: (02)2267-7857

5처산소 유사 연락처

세	관 직	소재	유사	전화번호
시 조	문림랑공	청 송	相燾	010-6889-7733
			宜亮	016-9225-3618
2 세조	합문지후공	함 열	瑠燮	011-676-0892
3 세조	청화부원군	안 성	光澤	011-732-5768
4 세조	청성백	연 천	良燮	011-728-2104
4세조비	청주송씨	청 주	成輔	019-480-9994
靑 松	청송심씨 찬경회관 館長	載 洪		054-874-3400
				018-505-7611
	악은공종회 총무 相學			010-7136-3572
淸 州	청 주 회 관			043-286-7857